

한미FTA의 소프트웨어산업 영향 분석1)

김규성*, 유종호*, 손정달*, 강기봉*, 김현수**, 김중한**, 안연식****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국민대, ***경기대, ****경원대

The Impact on Software Industry by Korean-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Kim, Gyusung*, Ryoo, Jongho*, Son Jengdal*, Kang Gibong*,
Kim, hyunsoo**, Kim, Joonghan**, Ahn, Yeonshick****

*Korea Software Property-right Council, **Kookmin University, ***Kyonggi University,
****Kyungwon College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미FTA 체결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을 패키지소프트웨어, IT서비스, 디지털콘텐츠 등으로 구분하여 경쟁력 및 대미 수출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관련된 한미 FTA 협상 영역중에 통신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 저작권, 그리고 정부조달 영역 등에 대해서 각각 소프트웨어 산업 부문에 파급되는 영향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론으로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의 자체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국 관련 시장에 폭넓게 진출하기 위한 전략의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정책상의 제안이 제시되어 있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자유무역협정(FTA)은 국가 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하는 협정으로서, 당사자간 제반 무역 장벽을 완화 또는 철폐로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혹은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 무역협정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협정을 진행중이며, 현재 3차 협상까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협상이 본격화 되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산업으로서의 소프트웨어 산업(IT서비스와 지식 산업 포함)에 있어서 영향을 분석하고 다각적으로 파급 효과를 추정하여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각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미래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소프트웨어 산업의 정의와 현황의 개략적 분석
- 한미 FTA 협상 영역과 소프트웨어 산업에의 영향 분석
- 지적재산권 관련 쟁점 사항과 소프트웨어 산업에의 영향 분석
-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정책상의 제안

2.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가.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 분석

우리나라에서 2005년도 총 소프트웨어산업의 생산액은 약 20조원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한 수출은 약 3% 정도, 수입은 약 2%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생산액은 2000년~2005년 기간 동안 거의 2배의 성장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액은 같은 기간 동안에 7.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무역수지를 파악해 보면, 패키지소프트웨어 부문에서의 적자폭이 크고, 컴퓨터관련 서비스나, 디지털콘텐츠서비스에서는 흑자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체 무

역수지 면에서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교역국을 분석하면,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대부분은 미국으로부터 수입규모가 크다.

Knowledge Research Group 조사에서 2003년 또는 2004년에 연간 1억원 이상의 소프트웨어 수출 실적이 있는 우리나라의 50개 기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한 보고서(2005)에 나타난 국가별 수출액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수출은 2003년도에는 일본, 2004년도에는 중국이 주요 수출국이었으며, 미국의 비중은 10%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약간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나. 한·미 소프트웨어산업의 현황 분석

한·미의 소프트웨어 부문의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봄으로써, 총괄적인 상호 경쟁력을 분석한다. 다음 [표 1]에서는 한국은 미국과의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부문의 교역에서 2004년을 기준으로 8,400억원의 무역적자를 나타냈으며, 반면에 미국은 1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한미간 소프트웨어 산업 무역수지 비교

(단위: 백만원, 백만달러)

| 구분 | 한국 | | | 미국 | | |
|-----------|-------------|-------------|------------|---------|---------|---------|
| | 수출 | 수입 | 무역수지 | 수출 | 수입 | 무역수지 |
| HW | 61,616,479 | 40,365,287 | 21,251,192 | 147,393 | 232,320 | -84,927 |
| 통신, 방송 | 553,437 | 955,879 | -402,442 | 4,825 | 0 | 4,825 |
| SW | 301,510 | 1,140,975 | -839,465 | 10,481 | 1,216 | 9,264 |
| IT서비스 | 796 | 4,299 | -3,503 | 4,475 | 967 | 3,507 |
| SW+IT 서비스 | 302,306 | 1,145,274 | -842,968 | 14,956 | 2,183 | 1,271 |
| 정보통신산업 | 312,249,566 | 216,705,760 | 95,543,806 | 167,173 | 234,503 | -67,331 |

(자료: 한미간 SW산업의 국민경제적 효과분석 연구, KIPA, 2005)

국내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외국 제품이 97.2%를 차지하고 있고, IT 서비스 부문에서만 국내 업체가 87.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IT 서비스에서는, 국내의 10대 기업이 79%를 차지하고 있어서 독과점 형태가 심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IT서비스 산업은 미국 기업에 의해서 100% 수행되고 있다. 또한 컴퓨터, 반도체

등이 포함된 IT산업 전체에서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입에서 흑자를 보이지만,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미국에서의 수입액이 과도하게 많아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수출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대미 수출액의 비중이 15.5~22.1%로 나타나며, 전반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수출실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우리나라의 대미 소프트웨어 수출액 변화
(단위: 천달러, %)

| 구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
| 패키지 소프트웨어 | 25,321 (29.3) | 23,564 (31.1) | 24,658 (21.8) | 24,856 (21.7) |
| IT서비스 | 38,213 (12.8) | 58,001 (14.5) | 79,204 (18.3) | 89,687 (18.8) |
| 디지털 콘텐츠 | 17,015 (20.1) | 10,398 (8.8) | 79,793 (28.0) | 103,188 (17.3) |
| 계 | 80,549 (17.1) | 91,963 (15.5) | 183,655 (22.1) | 217,731 (18.3) |

(자료: KIPA, 국내 소프트웨어의 해외 수출실적, 2006; 2005년은 북미지역 수출액)

다.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부문별 경쟁력 분석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한 연관분석(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5)에 따르면, 정보통신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하지만, 총 수출의 48%, 총수입의 43% 그리고 총 무역수지 흑자의 약 66%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분야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 하드웨어 부문은 큰 폭의 흑자를,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연간 8,400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수출경쟁력이 취약하고, 내수기반에 의해 영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시장의 규모는 세계의 40%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패키지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세계 상위 100대 기업 중에서 미국 기업은 83개 업체, IT서비스 부문은 세계 상위 100대 기업 중에서 53개 기업이 미국 기업이다. IDC의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추세는 2009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0.9~1.0%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성장세는 세계 평균치를 상회하는 9%를 전망하고 있다(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5. 12).

패키지 소프트웨어 부문은 국내 50대 패키지소프트웨어 업체의 매출액 중에서 국내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1.9%에 불과하며, 미국기업의 점유율은 약 38%에 달한다(IDC, 2004). 특히 국내의 패키지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미국 업체제품의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과 그 성장률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세계 1,000대 기업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기업은 8개에 불과하며, 국내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보안(Security), ERP를 제외하면 미국 등 해외기업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다. 특히 운영체제(OS), DBMS 등 기반 분야에서는 매우 취약한 수준으로 무역수지상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추세만을 놓고 보면 FTA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은 미약할 것이다.

IT 서비스 부문은 국내 사업에 대해서 비교적 국내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약 60~70% 정도로서 높은 편이며, IT서비스 부문의 미국 시장은 세계 시장에서 40~50%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면서도 전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독무대로 점유되고 있다. 국내의 IT서비스 부문에서 국내 업체의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상위 10대 기업의 매출액중에서 미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다가서고 있다. 또한 국내 IT컨설팅 서비스부문에서 미국 기업이 6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서비스화는 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에서 출발하는 개념으로서,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사용료를 내고 일정 기간 빌려 쓰는 IT 임대서비스 산업이다. 세계 ASP산업은 작년 54억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25% 성장했으며, 2009년에는 107억달러에 도달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 ASP시장은 작년 43억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32.9% 성장했으며 2009년에는 83억달러에 도달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SaaS(Software as a Service)는 소프트웨어를 제품 중심이 아닌 서비스 형태로 제공한다는 것으로 최근 SW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로서, 웹을 다른 소프트웨어를 위한 운영 플랫폼으로 삼아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온-디맨드 형태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ASP와 차별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문에서도 우리나라의 일부 서비스가 사용화되고 있으나 미국 기업의 잠재력은 매우 큰 규모로 추정된다.

디지털콘텐츠(DC)부문에서는 국내 DC의 해외 수출은 2005년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23%나 성장하는 등 급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 규모는 미국의 1/18 정도 규모에 그치는 수준이다. 다만, 국내 온라인 게임 부문은 2005년 현재 세계 시장의 23.5%를 장악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게임에서도 온라인 환경의 거래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회요인이 우리나라 DC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국내업체들이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온라인게임의 기반이 되는 게임 콘텐츠 개발능력이 부족한 여건이다. 한미간 DC의 수출입내역을 분석하면 무역수지에서 많은 적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는 소프트웨어 산업과 직접 관련된 분야이지만, 방송, 통신부문과 함께 디지털 통합(digital convergence)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통합적인 시각에서의 분석이 별도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 산업에서는 미국은 1997년~2001년 기간에 연평균 9.3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1년을 기준으로 전체 규모는 약 7,912 억달러로서 GDP 내 비중은 7.75%에 이른다. 그중에서 핵심부문의 저작권산업이 부가가치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는 약 5,351억 달러로 GDP의 약 5.24%를 차지하였는데, 이것은 미국 경제의 평균 국민소득 성장률의 약 3배에 달한다. 또한 저작권유통산업도 GDP 대비 비중이 2001년 기준으로 1.49%에 이른다.

결론적으로,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경우, 전체 시장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패키지소프트웨어 업체의 상위 50개 기업매출 합계의 70% 이상을 미국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IT서비스 시장은 미국기업보다는 우리나라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편이지만, 실제 IT서비스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패키지 및 하드웨어 장비 등을 포함하면 IT서비스에서도 열위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IT 컨설팅 서비스 시장에서는 국내 컨설팅 시장내의 상위 10개 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임을 알 수 있다.

3. 한미FTA 협상 영역과 소프트웨어 산업에 의 영향 분석

가. 한미 FTA의 협상영역별 영향 분석

우리나라는 UR협상을 통해서 1996년도부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무관세가 이루어졌으며, 1997년 발효된 ITA(정보기술협정)에도 소프트웨어가 무관세 품목으로 적용되었다. 또한 컴퓨터 관련 서비스가 UR협상에서 전면 개방을 실시하게 되어 소프트웨어 부문의 서비스에 대해서 개방된 상태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분과별 협상안과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에의 영향 분석을 위해 검토한 결과 소프트웨어 산업영역을 동시에 고려하여 17개 협상분과(negotiating group)를 중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에 영향이 제일 큰 분야는 [표 3]에서와 같이 지적재산권, 통신/전자상거래, 서비스, 그리고 정부조달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3] SW 산업의 영역 및 FTA 협상영역

| SW 산업 영역 | 주요 사업 내용 | FTA 협상영역 | | | |
|-----------|----------------|----------|--------|-----|-------|
| | | 상품 무역 | 전자 상거래 | 서비스 | 정부 조달 |
| 패키지 소프트웨어 | 패키지 개발, 공급 | ▷ | ● | ▷ | ● |
| IT서비스 | 정보전략계획(IT 컨설팅) | | | ● | ● |
| | 소프트웨어 개발 | ▷ | | ● | ● |
| | 운영아웃소싱 | | | ● | ● |
| 디지털 콘텐츠 | DC 개발/구축/서비스 | ▷ | ● | ▷ | ● |
| | DB 구축/서비스 | ▷ | ● | ▷ | ● |

(주) ●: 주요 대상 영역, ▷: 관련이 되는 대상 영역

나. 통신/전자상거래 영역에서의 영향 분석

전통적으로는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도 상품 무역이 대부분이었으나, 일부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에 의한 서비스 무역의 형식을 거쳐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무역이나 국제적 전자상거래가 등장하면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디지털 재화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인 형태와 동시에 전달매체(예를 들면, CD 등)를 통해서 물리적인 형태로 전달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일부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는 부문(시청각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온라인 게임 등)도 있지

만, 대체로 디지털 제품의 전자적 전송으로 보아 통신/전자상거래 부문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통신/전자상거래 영역에서의 영향과 향후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현지 법인이 없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에 의한 디지털재화의 거래형태에서는 소비자 보호, 전자인증, 경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법,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현재도 무관세이지만, 기타 음악, 게임, 영화 등의 디지털 재화의 전자상거래에 부과되는 관세는 최소한의 기간내에 무관세로 전환될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디지털 재화에 대한 통신/전자상거래를 영구적으로 무관세로 설정하고자 요구할 경우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향후 추이를 관찰하면서 대응해야 할 장기적 전략과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상품무역이 전자상거래에 의한 무역형태로 전환됨에 따라서, 현지 법인이 없거나, 장기적으로는 일부 축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감소나 관련 분야에서 새로운 고용창출 기회의 축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 서비스 영역에서의 영향 분석

서비스 시장은 법률, 회계, 세무, 금융, 교육, 의료, 방송, 광고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광의적으로 보면 농수산(1차 산업) 및 제조업(2차 산업)을 제외한 3차 산업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 영역은 WTO 서비스협상을 위해 우리나라가 구분한 서비스부문은 국제연합(UN)의 표준상품분류코드(CPC)에 기준하여 사업서비스 영역의 사업서비스 중에서 컴퓨터 관련 서비스(Computer and Related Services)의 분류에 속하는데. 여기에는 컴퓨터 설비자문, 소프트웨어 구현, 데이터 프로세싱, 데이터베이스, 기타의 항목들이 포함된다.

주요 특성으로는 IT서비스 유형 및 시장 규모의 급격한 증가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서비스 기업이 가지는 낮은 생산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나, 서비스 영역에서 한-칠레, 미-칠레, 미-호주 FTA에서 유보항목이 없다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큰 이슈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IT를 기반으로 한 타 분야 서비스(교육, 의료, 등)의 개방은 별도로 해당 산업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관련 분야에서 다른 FTA 체결 내용을 보면, 중국이나 일본에서 WTO체제에서 양허사항(일본에서는 컴퓨터예약시스템을 양허하지 않음)을 볼 일부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유보항목이나 이슈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부문에서의 기술발전 추세 및 응용서비스의 출현 측면에서 장래의 추이를 주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정부조달 영역에서의 영향 분석

미국 연방정부의 연간조달규모는 3,468억달러, 10,511천건으로(2004년 기준)으로서, 건당 평균 계약규모는 3만 3천달러 수준이며, 전체 시장규모 증가율은 전년대비 금액기준 13.51%을 나타내고 있다.(임성주, KOTRA, 2005) IT 부문에서는 정부조달이 2006년 기준으로 약 1,02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이며, 이것은 연방정부에서 약 56% 그리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약 44%로 구성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의 미국에 대한 정부조달 실적은 연간 10억달러 내외로서, 전체 연방정부 조달시장 규모의 0.3%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진출상황이 매우 열악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이슈로는 미국산 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등 자국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 제도 문제 등 제도적인 측면 이외에 국방부문의 폐쇄성을 비롯하여, 신규기업이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컨트랙트 비히클(Contract Vehicle)제도, 과거 실적 요구 등 실질적으로는 많은 장벽이 존재한다. 또한 미국내 50개 주정부는 서로 다른 국가와도 같이 나름대로의 규칙과 독자적인 정책에 따라서 구매절차가 달라서 FTA추진이 지방정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기술중립성과 개방형표준과 관련된 정책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조달에서 국제입찰에 적용하는 하한선도 이슈중의 하나이다.

또한 한소협약의 조사자료에서도 미국 입국 비자문제, 상호 수준이 불일치한 공인 자격제도 등으로 인적자원 교류에서의 불균형이 제도적으로 심각한 사례가 제시되고 있다.

라.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영향분석의 요약

소프트웨어 분야는 WTO체제에서 GATT(상품)와 GATS(서비스)에 의해 관세가 없는 상태로 이미 시장이

대부분 개방되어 있다. 따라서 한미 FTA로 인한 추가적인 영향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단기적으로 무역적자 발생가능성 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소프트웨어 패키지, IT서비스 업체 등이 확보하고 있는 기존의 경쟁력을 활용해서 다양한 분야의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가능성과 우리나라에 진출함으로써 2차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정도는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수명주기가 짧고, 이른 바 잠금 또는 고착화 효과(lock-in effect)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간과하기 어렵다. 따라서 미국의 소프트웨어 관련 공공 및 민간 시장에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적극 진출하기 위한 기술력 배양은 물론, 정책과제의 발굴, 마케팅 및 홍보 지원을 가속화해야 하겠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정부를 비롯하여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학계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그동안 추진해오던 각종 상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의 추진과 연구개발 능력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4. 저작권 관련 쟁점사항과 소프트웨어 산업에의 영향 분석

1995년에 발효된 TRIPs협정(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서는 WTO 회원국 간의 합의 사항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을 어문저작물로서 취급하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2002년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핵심(core) 저작권 사업은 미국 GDP의 약 6%(\$626.6 백만)를 차지하고, 이와 같은 전체(total) 저작권 산업의 규모는 약 12%(\$1.25 조)를 차지한다. 여기에서 핵심(core) 저작권 산업이란 저작물을 생산(produce)하고 유통(distribute)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인 저작권 관련 산업이고, 전체(total) 저작권 산업은 핵심(core), 부분(partial), 비전용 지원(non-dedicated support) 및 상호의존적 영역(interdependent sectors)을 포함한다. 이중에서 핵심 저작권 산업 분야는 신문, 서적 출판, 녹음(recording), 음악(music) 및 잡지(periodicals), 동영상(motion pictures),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그리고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과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

한다.

미국은 FTA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을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으며, 서비스 관련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지적재산권 관련 산업이고 그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성장동력 및 수출주력산업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서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및 제도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문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요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 관련법에 관련 법률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절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17개 분과 중 지적재산권 부문의 협상안에서 저작권에 관련된 두드러진 쟁점사항과 고려사항들에 관하여 분석한다.

주요 쟁점사항은 크게 일시적 저장, 기술적 보호조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 저작권 보호기간 등의 4개 항목으로 정리된다.

[표 4] 저작권 관련 주요 이슈별 개념과 예상 쟁점

| 분류 | 개념 | FTA 예상 쟁점 |
|------------------|--|--|
| 일시적 저장 | ○ 디지털저작물이 RAM 등에 일시적으로 저장되거나 전원이 끊어지면 사라지는 현상 | ① 복제에 포섭 및 복제권 수용여부 ② 포괄적 면책(예외) 규정 적용여부 |
| 기술적 보호조치 | ○ 저작물의 무단복제 등의 불법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수단 또는 장치를 포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함 ○ 현행 저작권법은 이용 통제만 규정하고 있음. 단 프로그램보호법은 이용 통제 및 접근 통제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① 접근통제 포함 여부 ② 무력화 자체의 금지 여부 ③ 규정 방식(저작권 보호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규정 여부) ④ 기술적 보호조치의 규정 위반에 대한 예외 범위 및 규정 방식 |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 |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함은 다른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타인의 저작물침해 행위에 대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어느 범위까지 책 | ① 면책 대상을 유형별로 특정하고 각 유형별 면책 요건을 구체화할 것인지 여부 ② 침해자의 정보제공 의무 부과 여부 |

| | | |
|----------|-----------------------------------|--------------------------------------|
| | 임을 저야 하는지에 대하여 안정된 지위보장을 마련한 규정 | |
| 저작권 보호기간 | ○ 보호기간은 저작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함 | ○ 사후 50년인 보호기간을 사후 70년간으로 연장할 것인지 여부 |

일시적 저장 이슈에는 찬반 양론이 있으나,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시 대체로 미국의 요구가 인정되는 분위기이지만, 포괄적 면책(예외) 규정의 도입 또는 사례축적이 필요하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미국의 요구가 접근통제까지를 포함시켜 최대한의 비용을 부과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호주의 사례에서와 같이 일정기간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는 미국의 요구사항을 전체적인 방향 측면에서는 수용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기술적 어려움 등이 존재하므로, 저작권 침해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부과의 기반이 조성되는 등 여건의 성숙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문제는 소프트웨어는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기 때문에 기간연장에 따른 영향은 미미하지만 국익차원에서 다른 저작권산업 등과 연계하여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산업발전 및 대미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측면을 고려하고, 최대한 단시간내에 저작권 강국이 될 수 있는 전략적 육성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정책상의 제안

본 연구에서는 다음 [표 5-1]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의 자체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국 관련 시장에 폭넓게 진출하기 위한 전략의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영역별로 한미 FTA체결에 관련하여 도출된 주요 이슈와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산업에 미치는 정성적 영향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안한다.

[표 5] SW 산업영역별 한미 FTA체결 관련 주요 이슈/영향 및 정책 대안

| 구분 | 주요 이슈/영향 | 정책 대안 |
|--------|------------------------------|-------------------------------|
| 패키지 SW | -미국SW 제품 특히 시스템기반 SW의 국내시장 점 | -SW제품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기술표준의 확대 적용 |

| | | |
|------------|--|--|
| | 유율/의존도 높음 -국내 SW제품의 경쟁력 취약 | -기반SW 개발능력 확보 -고부가가치 영역의 SW기술력 제고 |
| IT서비스 | -미국 관련시장의 규모는 크나, 미국업체의 독무대 | -국내 IT서비스 기업의 글로벌화 지향 -미국 IT서비스 관련 시장에 진출 지원 |
| 디지털 콘텐츠/DB | -디지털제품의 통합(컨버전스) -SW는 무관세이나 관련 디지털제품의 관세 | -통합관점에서의 관세 정책 대응 -국내 디지털콘텐츠의 고부가가치화 |
| 통신/전자상거래 | -디지털재화의 전자상거래 영구 무관세 요구 -디지털재화의 재산권 보호 정책 요구 | -영구무관세 관련 협상시 점진적인 추이 검토 필요성 반영 -현지법인 없는 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대금 결제 등 국제적 규범 및 기술표준 확보 필요 |
| 서비스 | -소프트웨어의 서비스화 -국내 서비스기업 생산성(의사소통능력) 저하 -관련 산업에서의 IT컨버전스 | -국내 고용, 투자규모 축소 대책 필요 -국산 SW 패키지의 서비스화 제공 기술기반 확산 -미국시장 진출기반 확보 및 정책지원 |
| 지적 재산권 | -일시적 저장 -접근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제한 -보호기간의 연장 | -일시적 저장, 접근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정책 제도화에 관한 점진적 확대 및 시기 조절 -보호기간 설정에서 SW이외의 지적재산권 산업과의 관련성 검토 |
| 정부 조달 | -미국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비율 저조 -개방형 기술표준 정책 설정 |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관련 법/규제적 차별사항 시정요구 -정부조달의 범위설정: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지방공공기관 |

첫째,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미국 SW 제품 특히 시스템기반 SW의 국내시장 점유율/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국내 SW제품의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시장에서 상호운영성이 확보된 SW제품과 관련된 기술표준의 확대 적용, 운영체제, DBMS 등 시스템 기반 SW 개발능력의 확보와 고부가가치 영역의 SW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IT서비스영역에서는 미국 관련시장의 규모는 크나, 미국업체의 독무대가 되고 있는 실체를 파악하여,

국내 IT서비스 기업의 글로벌화가 필요하며 미국 IT서비스 관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디지털콘텐츠 및 데이터베이스(DB)영역에서는 디지털제품의 시장규모 증가에 따라 국내 디지털콘텐츠의 고부가가치화는 물론 디지털 제품의 통합(컨버전스) 추세에 따라서 SW는 무관세이지만 SW 이외의 관련 콘텐츠와 통합관점에서의 관세정책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통신/전자상거래 영역에서는 디지털재화의 전자상거래 거래에서 영구무관세 관련 협상시 점진적인 시장 및 기술추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점을 협상에서 반영하여야 하며, 현지법인이 없는 전자상거래의 확대추세에 따라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대금 결제 등 국제적 규범 및 기술표준의 확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서비스영역에서는 소프트웨어제품의 전자상거래에 이어 서비스화(SaaS) 추이는 확산되고, 국내 서비스기업 생산성 및 의사소통능력은 낮은 수준에 있어 미국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이러한 추이를 고려할 때 국내 고용, 투자규모의 축소가 가져오는 대책이 필요하며, 국산 SW 패키지의 서비스화 제공 기술기반의 확산과, 미국 IT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기반의 확보 및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IT 서비스 이외의 관련 서비스 산업에서 IT와의 컨버전스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IT가 종속 또는 부가적으로 내장/융합/포함되어 거래되는 형태에서의 복합적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여섯째, 지적 재산권 영역에서는 일시적 저장의 인정, 접근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제한 등 미국에서 지적 재산권의 철저한 보호정책 요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적재산권의 가치와 미래시장의 규모 등을 새롭게 인식해야 함은 물론, 국내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의 국익보호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정책 제도화에 관한 점진적 확대 및 시기의 조절이 필요하다.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기간 설정에서는 SW산업 이외의 지적재산권 산업과의 관련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조달 영역에서는 미국 정부조달 시장에 국내 업체의 참여비율이 저조한 상황이며, 개방형 기술표준 정책의 설정에서 의견차이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관련 법/규제적 차별사항을 시정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정부조달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지방공공기관 등의 목록을 협정의 부속서류에 반영해야 한

다.

[참고문헌]

- [01] 고상원, 고도지식기반사회 창조를 위한 소프트웨어 산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NSF2006 발표자료, 2006. 7.12
- [02] 고영국, SW 지적재산권 관련 FTA 대응방안 연구, 컴퓨터프로그램 심의조정 위원회, 2005. 12
- [03] 김덕현,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과 전자거래 (e-Business), 세종대, NSF2006 발표자료, 2006. 7.12
- [04] 김정곤, 한미FTA를 통한 대미 진출 확대전략 세미나, 한국무역협회·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4
- [05] 김종선 외 2명, FTA 협상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서비스 분야의 양허 현황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 [06] 김종선 외 2인, FTA 협상을 위한 과학기술관련 서비스 분야의 양허현황 분석: 한국·일본, 한국·싱가폴 FTA 협상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8
- [07] 김현철.박덕영, FTA체결에 있어서 저작권분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미국을 중심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연구자료 49,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5. 12
- [08] 무역연구소, 미-칠레, 미-호주, 한-칠레 FTA의 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 유보 리스트 내용을 중심으로, FTA연구팀, 2006. 3. 28
- [09] 무역연구소, 한-미 FTA를 통한 상품 분야 대미 진출 확대 방안, 2006. 4, FTA 연구팀
- [10] 문지영 외 2명, IT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Offshoring 적용 모델 고찰 : A사 사례를 통하여, Entrue Consulting Partners, pp. 21-34
- [11] 윤창인, 한중일FTA: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협상의 시작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12
- [12] 이한영, IT분야 최근 통상현안과 정책과제(KISDI 이슈리포트 03-24), KISDI, 2003. 12
- [13] 임성주, 한미 FTA 추진에 따른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확대 전략, KOTRA 통상전략팀, 2005
- [14] 정보통신연구진흥원, Global IT Market Trend, 정보조사연구팀, 2005. 12
- [15] 정인교, 한·미 FTA의 주요 이슈와 정책시사점 (KIEP 세미나 브리핑), 세계경제, 2002. 1, pp. 88-94
- [16] 하나금융연구소,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 및 시사점(제5호), 2006. 2. 28
- [17]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미 FTA 체결관련 SW산업계 설문조사 결과, 2006. 6
- [18]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자 경쟁력 강화 전략, NSF2006 발표자료, 2006. 7. 12
- [19]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SW 시장의 신조류 '서비스로 제공되는 SW(SaaS)'-산업동향, 2006. 9. 4
- [20]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4년도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조사 보고서, KIPA, 2005
- [21]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5년도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조사 보고서, KIPA, 2006
- [22]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제도 개선 연구, KIPA, 2005. 12
- [23]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미간 소프트웨어산업의 국민경제적 효과분석 연구-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KIPA 정책연구 05-01, 2005
- [24]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미FTA, 개방과 산업구조 고도화(SW Insight 정책리포트),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센터, 2006. 6
- [25]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IT서비스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보고서, KIPA, 2003. 12
- [26] 한미자유무역협정중 지적재산권 및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의견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지적재산권공동대책위원회
- [27]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미 FTA의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이슈: - 「한·미 FTA에 대한 소프트웨어업계 인식조사」 결과 -, 2006. 10
- [28] Knowledge Research Group, 국내 주요 소프트웨어 수출기업 SW 수출동향, 2005. 1